

9) 상사소(想思沼)

황전천은 삽제에서 발원한 물이 수평과 월등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해 동북으로 역류하여 선변마을에서 섬진강으로 흘러든다. 옛날엔 이 내를 선천(仙川)이라 했다. 선천 가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선변이라 불렀을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 수평리에 물이 깊은 소가 산밑 절벽 곁에 있는데 상사소이다.

백제 때 백야마을에 사당패가 와서 곳을 했는데, 어느 부잣집 처녀가 저녁을 먹고 그 곳판에 구경하러 갔다. 한참 구경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쁜 총각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곳판을 빠져나와 강변에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뒤로 날마다 강변에서 만났다. 처녀 어머니가 그걸 눈치채고 딸을 감시하자 총각은 밤마다 강변에서 처녀를 기다리다 그만 병이 들어 죽었다.

그런데 처녀 눈에 죽은 총각이 구렁이가 되어 나타나곤 했다. 처녀도 시름시름 앓아 누웠다. 용한 점장 이에게 점을 쳤더니 처녀에게 총각귀신이 들었다고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날을 받아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냇가 산자락의 바위로 가 편평한 반석 위에서 비손을 하는데, 처녀가 앉아 있는 가마 밑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 무당에게 다가오자 무당이 기겁을 하여 가마를 떠밀었다. 그 바람에 가마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고, 구렁이는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물에 빠진 처녀를 칭칭 감고 물속으로 들어가버렸다.

그래서 상사소라 부른다. 그런데 삽제 팔동과 건구 칠동의 처녀가 시집갈 때 신행길에 가마를 타고 상사소 곁을 지나면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 1950년대까지도 가마를 타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더 먼 길로 돌아갔다. 그러나 택시가 등장하면서 신부가 그 곁을 지나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아 지금은 이야기로만 전할 뿐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귀신도 택시한테는 범수를 못하는가 보다.